

# 함평만 낀 영광~무안 교량으로 잇는다

향화도~도리포 2km... 2019년 완공

## 지역 교통여건 개선 주민 불편 해소

오는 2019년 함평만을 사이에 둔 영광과 무안이 연결된다.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광·무안군에 따르면 영광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 해상구간 약 2km를 잇는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와 영광군 영산면 봉남리를 잇는 전체 구간 9.52km 도로 개설공사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528억원(시설비 1490억·보상비 33억원)이다.

향화도와 도리포 구간의 함평만 해상에는 길이 1.84km의 교량(영광대교)도 들어선다.

완공 예정시기는 오는 2019년 6월께로 이번 사업자 선정은 '대안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안입찰 방식'이란 정부 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대안이 정부가 설계한 원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 하나이다.

영광~해제 도로건설 공사는 국토의 서해·남해·동해를 연결하는 U자

형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량과 도로 개설공사가 끝나면 기존 50km(50분)을 우회해야 했던 영광~무안간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 소는 물류 물류수송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착공한 현경~해제 구간과 연계돼 무안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광·함평·무안 등 서해안 지역 간선도로망 역할은 물론 무안·함평만 갯벌과 영광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서해안 일주도로 등과 연계



돼 관광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이상·김민준기자 ischoi@



장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 체육관에서 관내 8개국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있다. 이날 장흥고는 창의적 체험학습 일환으로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문화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장흥군 제공〉

## 다문화 요리체험교실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문화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했다.

## 한국 전통정원 '순천정' 금상

### 中 서안 화훼박람회 정원경연대회

'2011 중국 서안 화훼박람회' 행사를 조성된 한국 전통정원 '순천정'(順天亭)이 최근 화훼박람회 정원 경연대회 견적의 장식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서안 화훼 박람회장에 조성된 52개园 109개 정원을 대상으로 총 7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지난 8월 완공된 '순천정'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애련정(愛蓮亭)을 기본으로 정자, 연못, 화계, 화관답장을 수목과 조화롭게 배치해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순천시는 시공은 물론 설계에서부터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 목재를 치우하고 한



국 기술자를 현지로 파견 공사를 완료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순천시와 중국 서안시는 지난해 3월 양국 박람회장에 교차 정원을 조성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순천정'은 전통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정신세계를 출렁하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시안시는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78일간 '국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김은중기자 jyj@

## “청렴 공직문화 정착합시다”

###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직원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행운)는 지난 16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특별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투명한 경비집행, 겸손한 공직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바른 모습에 모범이 되겠다"고 결의 했다.

김행운 광주지사는 "청렴뿐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원칙과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공직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공직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신임사장은 정도경영, 청렴경영, 감성경영의 경영 방침으로, 정직하고 땃떳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청렴 공기업으로 사회적 공기업의 모범상을 갖출 것을 강력히 주문한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

## 주민 애로·건의사항 치안행정 반영

### 화순경찰 '치안포럼'

화순경찰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나가는 치안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윤영성 서장은 지난 5월 부임 이후 관내 치안센터와 파출소 등을 돌며 지역주민들과 치안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치안행정에 직접 반영했다.

현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인 '화순 치안포럼'은 춘양면 등 11개 면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층의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등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봉황중의 경우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등 접근성이 떨어져 유능한 강사를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측의

주장에 컨설팅팀은 인근 학교와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컨설팅팀은 나주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순회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이와 별도로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 주문했다.

지난해부터 '방과후 학교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받아온 봉황중학교는

집(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 나주 '부활의 집' 전면 개보수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 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이하 관리협회)가 매년 칭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나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무료로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와 함께 별도로 1450만원의 성금까지 기부하는 등 훈훈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

관리협회는 '부활의 집' 화장실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복지시설 층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어 개·보수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관리협회는 시설물 개·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 모임이다.

관리협회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부활의

집' 원장 김종운)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한 뒤 완공식을 가졌다. 〈사진〉